

儒敎와 巫俗의 相關關係

琴 章 泰

머릿말

한국인의 종교적 전통 속에서 儒敎는 중국문화를 배경으로하여 우리의 전통사회에 통치원리와 규범체제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巫俗은 동북아시아의 원시신앙을 연원으로하여 만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민간신앙으로서 강인하게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儒敎와 巫俗은 우리의 종교사적 전통을 형성해오는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성격을 전개시키면서 동시에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교와 무속이 지닌 신앙적 기반과 양상의 공통성과 차이를 검토하면서 兩者間의 상관성을 해명한다는 것은 한국종교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儒敎와 巫俗의 淵源的 相關性

儒敎의 사상적 淵源을 三代文化라 하고 그 내용이 五經 속에 정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五經을 통한 上古代의 신앙적 전통에서는 巫俗과의 공통기반을 광범하게 확인 할 수 있다. 「周禮」의 6官 가운데 春官은 祭祀를 맡은 관직으로서 그 가운데 大卜·卜師·龜人·占人·筮人 등은 卜筮를 통해 吉凶을 分辦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筮人이 三易(連山·歸藏·周易)으로 九筮를 分辦할 때의 九筮는 巫便·巫感·巫犬·巫目·巫易·巫比·巫祠·巫參·巫環이라 하여 卜筮와 巫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또한 春官의 司巫는 上士·中士·下士의 職으로 群巫를 管掌하여 大旱·大災·祭祀·喪事에 참여하였으며,¹⁾ 男巫는 望祀·望衍을 管掌하고 女巫는 歲時被除糞浴을 管掌하는 職무가 주어졌다. 따라서 유교제도의 古典的 理想인 「周禮」의 체계

1) 周禮·春官宗伯, 「司巫, 掌群巫之政令, 若國大旱, 則師巫而舞雩, 國有大災, 則師巫而造巫恒, 祭祀則共厭主, 及道布 及 祖館凡瘞事守, 凡喪事掌巫降之禮。」

속에서는 巫의 역할이 公認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尚書(咸有一德篇)에는 殷의 太戊시대에 妖怪가 일어나자 재상인 伊陟이 巫咸을 도와 祈禳을 하게 하였다. 이 巫의 역할에 대해 丁若鏞은 「古之巫祝, 必擇精神不貳 衷情齋肅之人, 使居其職, 其聖也宣朗, 其明也光照, 以能事上帝明神, 凡有災祥, 使之祈禳, 巫之爲職, 豈賤卑如後世平」²⁾라 하여 古代의 巫는 聖明한 德을 지녀 上帝明神을 섬길 수 있었다고 긍정적 이해를 하고 있다. 論語에서 孔子가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란 말을 인용하며 칭찬하고 있는데 대해, 朱子는 巫를 鬼神과 交流하는 것이라 인정하지만 賤役이라 註釋하였는데, 丁若鏞은 「古者神聖之人, 乃德爲巫醫, 故神農黃師岐伯巫咸之倫, 乃治此術, 後世其法失真, 其人遂賤」³⁾이라 한 것도 巫의 근원적 神聖性을 유교적 입장에서 긍정하는 것이다.

殷代의 甲骨은 龜卜의 占法이었고 「周易」도 筮法에 의한 占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周易에서는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觀卦·彖傳)라 하여 神道가 그기반임을 밝혔고, 丁若鏞도 卜筮는 天命을 받는 것이라 지적하고,⁴⁾ 유교의 역사적 전개와 더불어 卜筮의 지위가 몰락하는 과정을 해명하고 있다.⁵⁾ 곧 卜筮는 春秋시대에 이미 神道の 本질이 흐려졌고 秦漢시대 이후에는 邪術에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儒敎와 巫俗사이에 殷代의 神道の 공통근거와 周末이래의 分離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된다. 春秋시대에 孔子에 의해 유교정신이 정립되었을 때에는 神道の 前面에 倫理의 정신이 부각됨으로써 事神에만 빠진 巫俗과 結별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禮記」(表記篇)에서 「殷人尊神, 率民以事神, 先鬼而後禮, …… 周人尊禮尚施, 事鬼敬神而遠之」라는 언급이나 「論語」에서 孔子가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라는 언급에서 유교의 禮敎的·人道的 체계의 정립과 더불어 巫俗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어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與猶堂全書, II - 21, 尚書古訓序例.

3) 同上, II - 12, 論語古今註.

4) 同上, II - 48, 易學緒言·表記卜筮之義, 「古人事天地神明, 以事上帝, 故卜以聽命。」

同上, II - 48, 易學緒言·卜筮總義, 「總之卜筮之法, 其始也稟天命以前民用也。」

5) 同上, II - 48, 易學緒言·曲禮卜筮之義, 「先王之世, 敬事神明, 故設爲卜筮, 使民信時日, 敬鬼神, 春秋此義漸晦, 左傳諸筮, 已非古義, 秦漢以下, 卜筮漸論於邪術, 非復先王之本意, 故其在王制曰假於鬼神時日卜筮以疑衆者殺, 今人立法, 當以王制爲正。」

2. 儒敎와 巫俗의 神觀

「周易」(說卦傳)에서 제시된 天·地·人의 三才는 유교적 세계관의 기본 범주를 이루고 있으며, 神存在도 三才의 형식에 따라 周禮에서 天神·地示·人鬼로 제시되고 있다.⁶⁾ 따라서 神的 존재는 모든 존재영역에 깃들여 있는 것이 되고, 또한 祭祀의 대상이 되는 神的 존재로서 天·地·時·寒暑·日·月·星·水旱·四方을 비롯하여 山林川谷丘陵으로 구름을 내고 바람과 비가 되며 괴이한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모두 神이라 언명되고 있다.⁷⁾ 이것은 유교 속에 내포된 自然神崇拜의 神觀이라 할 수 있고, 「周易」(繫辭上)에서 「陰陽不測之謂神」이라는 규정을 性理學에서 더욱 일반화시켰을 때, 鬼神을 「陰陽消長」에 불과한 것이고, 氣의 屈伸往來이며, 二氣의 良能이고 造化의 자취라 하여 氣의 작용현상을 鬼神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⁸⁾ 인간의 神 즉 人鬼를 포함하여 이러한 유교의 神 내지 鬼神에 대한 自然神的 이해는 巫俗의 神觀과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한 영역 위에 놓여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유교의 사상적 체계 속에서는 神存在도 계층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天神·地示·人鬼의 다양한 群神들이 多神論의 질서를 넘어서 主宰者인 上帝 내지 天의 下級機能神의 성격을 갖는 것은 孔子의 「獲罪於天, 無所禱也」라는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天은 인간에게 性을 賦與하여 天·性·命·理가 一致하게 되는 天의 內在의 인식이 性理學의 특성으로 강조 되었을 때에는 巫俗에 있어서 恐怖의 대상이 되는 超越的 自然神觀과 성격의 차이를 뚜렷이 드러낸다.⁹⁾ 그러나 祭祀의 대상으로서 神은 유교전통의 봉건계급과 더불어 질서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天子는 天地·四方·山川·五祀에 제사하고, 諸侯는 四方·山川·五祀에 제사하고, 大夫는 五祀에 제사하고, 士는 先祖에 제사한다거나,¹⁰⁾ 王은 七祀, 諸侯는 五祀, 大夫는 三祀, 士는 二祀, 庶人은 一祀를 세제사를 지낸다는 계층질서이다.¹¹⁾ 여기서 7祀는 司命·中雷·門·行·厲·戶·竈를 포

6) 周禮·春官·大司馬, 「大司馬之職, 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

7) 禮記·祭法, 「……山林川谷丘陵, 能出雲, 爲風雨, 見怪物, 皆曰神。」

8) 性理大全, 卷 28, 鬼神.

9)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1981, p. 286. 참조.

10) 禮記·曲禮下.

11) 禮記·祭法.

합한다. 이러한 생활주변의 神的 대상은 巫俗의 민간신앙의 神的 대상과 공통이다. 그것은 巫俗의 신앙대상이 유교의 祭祀대상에 흡수되고 있는 사실을 말해준다. 물론 巫俗에서는 봉건제층을 구성하는 이론 체계가 없다. 이 봉건질서는 유교전통 속에서 거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강조되어 이 질서를 어길때 僭越한 것으로 論罪되고, 봉건질서의 한계를 무시한 祭祀는 淫祀로 비난 받게 되는 것이다.¹²⁾ 따라서 巫俗의 神들이 봉건질서에 구속받지 않는 사실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봉건제층이라는 인위적 질서의 한 걸음 밖에서는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공통된 神存在의 영역과 성격을 가졌던 것이고, 따라서 유교질서의 확보를 위해 무속에 대한 억압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3. 儒敎와 巫俗의 靈魂觀

유교사회에서 국가적 祭祀의 대상에는 天神·地示·人鬼가 갖추어 있으나 사회의 기본단위인 家族의 제사는 祖上神이 중심이 된다. 더구나 孝가 百行의 근본이 되고 齊家가 治國에 선행되는 擴充論的 의식체제에서는 祖先과 子孫의 인격적 유대가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祖上崇拜는 유교의 윤리적 내지 종교적 기본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死後의 祖上과 생존하는 자손이 공유하는 생명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유교적 인식내용이 문제된다. 인간생명이 신체와 정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반적 이해에서 魂氣와 體魄으로 구분할 때 죽음은 魂과 魄이 분리되는 것이라 설명되고 있다.¹³⁾ 살아있다는 것은 魂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性理學에서는 魄 곧 신체와 더불어 魂을 心性情으로 분석할 때 性은 개체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본질존재의 성격을 갖지만 心 내지 情은 개체적 존재로 신체를 떠나면 곧 死者의 魂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魂鬼는 心性에 있어서 처럼 개체적 인격성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死後이지만 자손의 誠敬에 感応하는 것이므로 祭祀에 降神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性理學의 입장에서는 魂鬼가 知覺을 가질 수 없으므로 死後의 天堂地獄은 무의미하다고 부정되며, 氣는 聚敬하는 것이요 죽음은 魂氣가 體魄으로 부터 遊

12) 禮記·曲禮下,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無福。」
論語·爲政, 「子曰非其鬼而祭之, 諂也。」

13) 栗谷全書, 拾遺 卷4, 死生鬼神策, 「其生也, 伸而爲神, 其死也, 屈而爲鬼, 魂氣升于天, 精魄歸于地。」

離되어 散滅하는 過程에 있으므로 遲速의 차이는 있지만 오래되면 散滅하고 말아 祖先과 자손 사이에 氣로서 感應할 수 없고 理로서만 感應이 되는 것이라 이해한다.¹⁴⁾

여기서 性理學의 鬼神死生論은 理氣論의 형식으로 死後存在를 설명한 것이지만 유교적 의식 속에서 死後에 靈魂의 永生을 확신하지 않을 지라도 事死如生의 孝誠에서 처럼 魂鬼를 生者와 같이 知覺과 感情이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死者의 靈魂과 情感的으로 받아들여지는 死者의 靈魂은 二重의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巫俗에서 靈魂의 死後存在를 생생하게 지각하면서도 死後世界가 天上이나 地下에 뚜렷이 한정되지 않는 것도 유교적 靈魂觀이 지닌 二重構造와 同一한 軌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교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怨鬼나 非命에 죽은 厲鬼는 氣가 鬱結하여 쉽게 消滅되지 않으며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여 위로함으로써 散滅시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巫俗이 상대적으로 怨鬼에 관심의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라면 유교의 魂鬼에 대한 관심은 祖先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격의 차이로 대조될 수 있을 것이다.

4. 儒敎와 巫俗의 祭儀

유교의 祭儀는 사회단위의 범위에 따라 邦國禮·鄉禮·家禮로 구분되기도 한다. 圓丘 내지 郊의 天祭는 일시적으로 드러졌으나 우리 자신이 諸侯國이란 의식에서 대체로 中國의 특권으로 인정해 왔지만, 社稷과 宗廟와 文廟의 祭儀가 중심을 이루고 風雲雷雨·城隍·靈星·嶽海瀆·先農·先蠶·雩祀·馬祖·司寒 등의 自然神 들에 대한 祭儀를 국가에서 관장하였다.¹⁵⁾ 지방에서도 社稷·城隍 등 제한된 공동체의가 있고 士大夫들 사이에 鄉射禮·鄉飲酒禮와 文廟·祠宇에 대한 祭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가족단위의 家禮라 할 수 있다. 冠婚喪祭의 儀禮가 모두 家廟를 중심으로하는 종교의식이라 볼 수 있지만 그 기본형식은 祭祀儀禮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四代奉祀가 일반화된 이래 家廟에는 일정수의 祖上神主가 모셔져 있고

14) 同上, 「其死不久, 則以氣而感, 其死已久, 則以理而感, 或有氣或無氣, 而其感格則一也, 而況子孫之精神乃祖考之精神, 則以我之有感彼之無者, 亦何疑哉, 此所以孝子子孫, 不敢死其親, 而祭則致其嚴者也。」

15) 世宗實錄, 卷 128 - 131, 五禮·吉禮。

일상적인 出入에서 부터 가정안의 大小事를 家廟에 告하는 생활은 祭儀이 전에 생활전반을 신앙의식 속에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祖上에 대한 祭祀는 名節과 忌日 時祭 등의 정기적인 것이나 喪禮기간 동안 각 단계에서 드러지는 祭儀에 공통된 형식은 準備단계와 本祭祀와 後統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 準備단계에서는 齋戒와 設位·設饌을 들 수 있고, 本祭祀에서는 降神·告祝·進饌·獻酌·送神을 들 수 있고, 후속 단계로 飲福·望瘞·納主를 들 수 있다. 齋戒의 의미는 參祀者의 淨化요 齋戒를 이루었을 때는 神의 모습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야 한다고 언급된다.¹⁶⁾ 焚香하여 魂氣가 감응하게 하고 降神酒를 茅沙에 뿌려 體魄이 감응하게 하여 降神하면 迎神을 함으로써 祭祀의 중심에 이끌려 진다. 降神의 古代的 형태에 尸(尸童)을 모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尸童은 祭物을 歆饗하며 降福하기도 하는 神位에 있는 것이다.¹⁷⁾ 이 祭儀에서 神은 歆饗함으로써 祭物을 먹는 것이라는 감각적 구체성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神의 歆饗은 본질적으로 降福인 것이요 參祀者는 神이 歆饗한 祭物을 食物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 飲福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유교의 祭儀는 巫俗에서 처럼 神을 降臨시키고 神과 마주대하는 생생한 계기를 갖는다. 그러나 유교의 神은 본질적으로 善神이며 祝福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巫俗에서와 같은 災殃의 제거보다 福을 받는 것에 핵심이 놓여 있다. 물론 祭儀는 경건함을 기본자세로 요구하고 神을 畏敬하지만 祖上神은 畏怖의 대상이 아니라 神과의 만남에서 인간의 삶이 祝聖되고 福을 누리는 救援의식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祓祭의 형태는 민속의 형식으로 유교의 祭儀속에 수용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맺는 말

유교와 무속의 공통성과 차이를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았을때 그 중요한 특징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사실을 들 수 있다. 첫째 유교와 무속이 서로 동일한 문화와 사고구조의 배경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유교가 갖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체계성은 때로 무속의 신비적 接神에 매물되는 것을 경계하고 거부하지만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유교의 근본에

16) 禮記·祭義, 「祭之日, 入室煖然必有見乎其位, 周還出戶, 肅然必有聞乎其容聲, 出戶而聽, 愴然必有聞乎其嘆息之聲。」

17) 拙稿, 「古代中國의 信仰과 祭儀」, 韓國宗敎學 제 1 집, 1972, p. 103-4.

그 공통성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유교는 전통적으로 무속을 賤視하고 억압하였지만 언제나 兩者가 공존해왔던 것은 그 둘 사이에 사회적으로나 신앙의식에서 相補的 기능을 지녔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유교가 상층 문화를 이끌어갔다면 무속은 하층의식을 이끌어 갔고, 유교가 도덕 규범적 형식에 따라 엄숙성을 강조했다면 무속은 신비적 종교체험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것이다. 유교가 전통사회에서 제증 질서를 강화하면서 소외된 婦女나 庶民의 정신적 안식처를 무속이 제공했다면 또한 무속은 그 사회적 내지 도덕적 질서를 유교체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兩者는 하나의 균형점을 찾아 개별성을 유지해왔던 것이라 생각된다.

Confucianism & Shamanism in Religious Tradition of Korea

1. In the long history of Korean religion, Confucianism and Shamanism has been antagonistic & get influenced each other, although they were originated from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ir mutual relationship from the point of their origins and, then som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in the concepts of gods, soul and sacrificial rites.

2. Many Confucian classics such as show that shaman were appointed as royal sacrificial officials. And eight-diagrams of I-Ching also functioned as shamans. Thus Jung Yak-yong(丁若鏞) a Confucian scholar in the Yi Dynasty, said that in the ancient times shamans had to perform many sacred duties, but after Han Dynasty their duties were degenerated to the extent that they finally became separated. These mean that they were originated from the same cultural background.

3. Another similarity these two religions have is that both have a pantheistic conception of God, including heaven, earth and man. But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at Confucianism acknowledges one supernatural Absolute (god of nature or god of ancestors), whereas Shamanism acknowledges many polytheistic gods. Thus, Confucian gods are hierarchial & correspond to social hierarchies, but shamanistic gods are free from such social status & perform tremendous social functions.

4. Confucianism claims that human souls do not last forever & becomes integrated into nature after death. And this is similar to shamanism in the sense that they do not acknowledge heaven & hell. But Confucianism insists ethical concept of good & evil and expects the blessings of good gods. Whereas sha-

manism only wishes us to become free from the fear of .

5. Another similarity between them is that both perform such duties as calling gods, offering drinks to them, calling for blessings, sending them back to their places and, finally, eating & drinking. Also, a form of shamanistic rites, has become incorporated to local gods in Confucianism. Thus many Confucianists are generous to shamanism, as it has been repeated by low class people & women. But Confucian rites has been greatly formalized according to social orders, whereas shamanistic rites remain more open & free, for they try to show man can become one with gods. At any rate, they have been existent together in the long history of Korea.

6. Although Confucianism & Shamanism were originated from the same background, Confucianism accepts ethical of good & evil, and thus rejects mystical & non-normative aspects of Shamanism. Moreover, although Confucianism officially despises shamanism, Confucianistic rationality of low class people & shamanistic freedom of low class people have always been influenced each other in Korean history.